

반도체·車 호조... “수출 우상향 흐름, 연말까지 이어간다”

산업부, 수출동향 점검회의
7월 누적 수출액 3925억 달러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흑자 기록
“10대 수출국 중 韓 증가율 1위”
8월도 수출 플러스·흑자 확실히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수출 상위국 중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도 월간 수출실적 플러스와 무역흑자도 확실히 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은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누적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7월 누계로는 268억달러 흑자다. 이미 작년 전체 적자 규모(103억달러)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7월까지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769억달러, +52%)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강력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424억달러, +2%)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달

러, +0.2%)는 동기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 선박(129억달러, +19%), 석유제품(310억달러, +9%), 석유화학(286억달러, +7%) 등 주력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1차관은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작년 10

월부터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9.9%로 글로벌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홍콩 포함, +4.7%), 멕시코(+4.4%), 미국(+1.8%) 등 6개국은 플러스, 네덜란드(-5.3%), 일본(-3.2%), 프랑스(-1.2%) 등 4개국은 마이너스다.

박 1차관은 “8월에도 11개월 연속 수

출 플러스와 15개월 연속 흑자 달성이 확실히 된다”며 “수출 우상향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 25일 발생한 이스라엘=헤즈볼라간 교전과 관련 “현재까지 원유 및 LNG 국내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선적 또는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도 정상 운항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 우리 수출에 파급효과가 큰 유가와 물류비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향후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중동 상황을 실시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I 교육이 미래의 VISION!

시가 바뀔 미래
그 미래를 가장 먼저 경험해 보고 배우며 상상해 볼 수 있는 곳
AI 교육시스템으로 미래 인재를 만들어갈 중앙대학교입니다

■ AI-SW 캠퍼스 체계 ■ e-Advisor ■ 챗봇챌리 ■ Rainbow System

CAU 중앙대학교

DO! THE BEST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4. 9. 10. (화) ~ 13.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02)820-6393

공간생물학 연구방향 등 공유 오가노이드-바이오 점점 확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내달 4일 세미나
공간 단백질 체학 활용 질병연구 등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와 사례 소개

오가노이드 기반 차세대 재생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오는 9월 4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와 첫번째 세미나를 시작한다. 오가노이드와 공간 생물학에 관한 트렌드와 연구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향후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 오가노이드와 바이오 업계와의 점점 늘려갈 계획이다.

첫 번째 세미나는 ‘최첨단 기술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 오가노이드와 공간 오믹스’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간 생물학의 중요성과 활용에 집중, 조직 내 세포들의 공간 관계를 연구하는 공간 생물학 개념과 공간 단백질 체학 및 유전체학을 활용한 질병 연구, 암 미세환경 분석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간 생물학 데이터 분석 기법과 장비 설명도 진행한다.

세미나는 동물대체 실험 법, 오가노이드 최신 트렌드와 연구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견희홀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바이오 연구의 미래는 첨단 기술과 잘 구축한 연구 생태계의 원활한 통합에 좌우된다. 따라서 바이오 연구에서 단일세포 멀티오믹스와 공간오믹스 기술 도입은 큰 진전을 만든다. 첨단 분석 방법은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세포 기능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정밀성과 깊이를 제공한다. 오가노이드와 첨단 이미징 기술의 결합 역시 연구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손진영 기자 son@

구의 정확성을 높인다. 기술 결합은 세포 환경과 조직 내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을 가능케 하고, 생태계 축진자들은 연구자들이 이 기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다. 협력 축진, 교육 및 훈련 제공, 그리고 최첨단 도구와 플랫폼의 가용성 보장도 이에 속한다. 축진자는 기초 연구와 임상 응용을 연결하는 중개자로 실험실 성과가 실제 의료 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도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유수의 대학, 병원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세미나 시리즈는 오가노이드 기술은 물론, 혁신 분석 장비와 기술을 탐구하고 바이오 업계와 연구 접점을 넓히며 미래 인력에 가치 투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씨는 9월 30일에도 한-아세안 바이오헬스 분야 네트워킹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